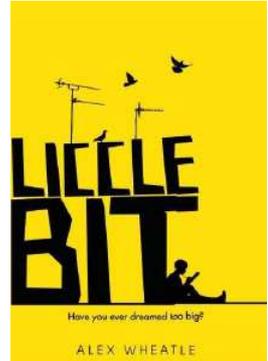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LITTLE BIT
가제 : 꼬맹이
저자 : Alex Wheatle
출판사: Atom
발행일: 2015년 3월 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텔레그래프」 투표에서 ‘올해 최고의 YA도서’로 선정, 2016년 ‘클럽 카네기 메달’ 후보
- * “뱀파이어, 디스토피아, 끔찍할 정도로 우울한 이야기의 늪에 빠진 YA 장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품. 영리하고 위트가 넘친다.” – 「인디펜던트」

키는 동급생들 중에 끝에서 두 번째로 작지만 꿈 하나만은 원대한 르마. 7학년 때 여학생들이 ‘꼬맹이’라 놀려댄 뒤로는 엄마와 할머니 외에 본명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고층 건물들이 뻗뻗이 들어선 브롱튼 남부 작은 마을에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아빠는 없고, 엄마는 혼자 가게를 꾸리시고 누나 일레인은 얼마 전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강패, 맨자로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르마는 공부에 별 취미가 없지만 그림 하나만은 끝내주게 잘 그린다. 요즘 르마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딱 두 가지다. 그림 실력을 인정 받아 성공하는 것과 학교에서 제일 잘나가는 여학생 베네티아와 친해지는 것. 꿈은 이루어진다더니, 이 간절한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 것만 같은 절호의 기회가 르마에게 알아서 찾아왔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온 덕에 특별 전시회에서 르마의 작품을 전시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더니,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던 베네티아가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먼저 부탁을 해온 것이다! 갑자기 소원 성취 고속도로에라도 오른 듯한 이 꿈 같은 일들은 이대로 순탄하게 이어질까? 안타깝게도, 기회만큼 갑작스러운 불행이 동시에 르마를 덮쳤다.

덩치가 푸짐하기로 소문난 르마의 친구, 맥케이는 베네티아와 반드시 데이트를 하고 말겠다는 르마의 호언장담에 배를 잡고 웃어댔다. 저 정도 여자애를 만나려면 전화기도 최소한 아이폰이어야 하고,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 흑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르마의 헤어스타일도 모히칸 컷으로 손질을 해야 하고, 웃은 최신 아디다스 운동복 정도는 입어줘야 한다는 것이 맥케이의 분석이었지만 의외로 꼬맹이 르마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림 실력 하나로 베네티아와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던 르마에게 불행을 안겨준 건 누나 일레인의 전 남자친구이자 사랑

스러운 조카 제롬의 친부, 맨자로였다. 사실 엄마 혼자 돈을 버는 빠듯한 살림에 제롬까지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누나가 맨자로의 도움은 일체 거부하는 이유를 르마는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는 허구한날 르마의 집에 찾아와 돈을 쥐어주려 했지만, 누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꺼지라고 화를 내기만 했다. 몰랐으면 더 좋았을 그 격렬한 분노의 이유를, 결국 르마도 깨닫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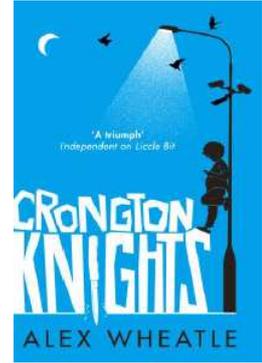
수상한 꾸러미를 건네며 ‘배달’을 해달라는 맨자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이었지만, 르마로서는 달리 선택권도 없었다. 흉악하기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의 말을 안 들었던 간 무슨 사단이 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겨우 그 이상한 부탁을 해낸 바로 다음 날,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르마가 배달을 하러 간 바로 그 동네에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르마는 곧바로 맨자로의 소행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동네에 갔던 건 바로 르마였다. 전시회, 베네티아와의 꿈 같은 데이트가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갱단이 저지른 범죄에 휘말리고 만 르마는 어떻게든 이 지저분한 소굴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빠져나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다.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썩어 썩어 싸이면서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목을 죄는 가운데, 르마는 과연 맨자로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들을 실화처럼 실감나게 그려낸 소설로, 이웃처럼, 가족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사이사이 더해진 맛깔 나는 유머와 더불어 흡입력 있게 전개된다. ‘2016년 가디언 아동소설 상’ 수상작인 『CRONGTON KNIGHTS』과 함께 ‘크롱튼’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현실을 그린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다.

<저자 소개>

알렉스 휘틀(Alex Wheatle)은 자메이카인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영국 서리에서 자랐다. 청소년 시절 야드맨 아이리(Yardman Irie)라는 가명으로 음악과 시 쓰는 일에 매진하다가 1999년 데뷔 소설 『BRIXTON ROCK』을 발표했다. 이후 『EAST OF ACRE LANE』, 『THE SEVEN SISTERS』, 『ISLAND SONGS』, 『CHECKERS』, 『THE DIRTY SOUTH』 등도 모두 평단의 호평을 받고 영국 내 학교에서 필독도서로 선정됐다. 2010년에는 BBC1 ‘원 쇼(The One Show)’ 등 자전적 내용으로 구성된 쇼에 출연했다. 2008년, 여왕 생일을 맞이하여 수여된 대영제국훈장의 문학 부문을 수상했다.

제목 : CRONGTON KNIGHTS
가제 : 크롱튼의 기사들
저자 : Alex Wheatle
출판사: Atom
발행일: 2016년 3월 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2016년 '가디언 아동소설 상' 수상작 (심사평 - “우아하고 현실적이며 인간미가 느껴지는 책”)
- * “마크 트웨인을 떠올리게 하는 작가의 생생한 방언, 풍성하고 낙관적인 활기가 가득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석 같은 책이다.” - 「인디펜던트」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나 담벼락은 없지만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진 크롱튼의 남쪽에 사는 맥케이는 6개월 전,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가까이 지낸 친구 ‘꼬맹이’ 르마가 갱단의 사건에 연루되어 갖은 고생을 한 후, 크롱튼이 한결 더 살기에 딱딱한 곳이 되었음을 체감하고 있다. 어린 조카의 친부인 맨자로가 하필 갱단의 두목이라 어쩔 수 없이 그의 심부름을 떠맡은 르마는 겨우 그 뒷에서 헤어나왔지만 북쪽과 남쪽의 대대적인 싸움은 잠시 휴전을 고했을 뿐, 언제든 더 크게 폭발할 여지는 남아 있었다. 십대들의 거친 다툼에 깜짝 놀란 어른들이 아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매진한 탓에, 이제는 어디를 가나 경찰이 순찰을 다니고 아이들이 모여 있기만 하면 다 해체시켰다. 학교에서는 총이나 마약 같은 흉악한 물건이 있을 까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물함 검사를 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상점에는 도난 사고를 우려한 탓에 두 명 이상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얼마 전, 크롱튼 시에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신나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다 무산됐다. 길을 걸던 십대 아이들이 풍선껌만 크게 불어도 곁에 있던 사람들은 흥칫 놀랄 정도였으니, 양쪽의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맥케이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열일곱 살인 형 네스타와 셋이서 사는 집에 아침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강제 명령장을 전달하러 나온 사람들이었다. 아빠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려 하지만, 맥케이는 너무 불안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아빠는 비스킷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며 밤 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하는데, 왜 집에는 돈이 없을까? 여윳돈은커녕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빠든 형이든 누구도 맥케이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게다가 형은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밤만 되면 뭘 하러 다니는지 아빠 몰래 돌아다니다 오기 일쑤고, 맥케이는 그 ‘불일’이라는 것이 결코 건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아빠도 도와드리고 싶고, 형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과 달리 설상가상 맥케이 자신이 큰 일에 휘말리고 말았다. ‘꼬맹이’가 두 친구에게 갑자기 이상한 부탁을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르마가 베네티아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맥케이나 또 한 명의 단짝인 조나 모두 잘 아는 사실이었지만,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부탁을 두 친구에게 꺼낸 것이다. 베네티아가 네 살이나 많은 세르지오라는 형과 사귄 적이 있었고 지금은 헤어졌는데, 그가 베네티아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가져가 버렸고 그 전화기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르마에게 같이 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르마는 맥케이와 조나에게, 혹시 다 같이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둘 다 잔소리를 해댔지만, 르마는 뭔가 말 못할 심각한 이유라도 있는 모양이었다. 맥케이의 다그침에 르마가 어렵게 털어놓은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세르지오가 베네티아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서 가지고 있으며, 그 사진을 자신의 전화기에 저장해놓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못된 계획을 막으려면, 베네티아의 전화기는 물론 세르지오의 전화기까지 다 빼앗아와야만 한다. 하지만 세르지오는 나이가 네 살 많을 뿐만 아니라 팔뚝이 덩치 크기 크기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맥케이의 허벅지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육질에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큰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 속에 겨우 갈라선 크롱튼의 북쪽에 살고 있다....

처음에는 딱 잘라 거절했던 맥케이는 결국 르마의 이 무모한 모험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영웅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이 일은 또 다시 폭력쯤은 우습게 아는 갱스터와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파장이 가뜩이나 골치 아픈 맥케이의 집안까지 뒤흔들어 놓는다. 베네티아를 구출하기 위해 용감히 나선 크롱튼 남부의 기사들은 과연 이 험난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심각한 상황에서도 절대 웃음을 놓치지 않는 작가 특유의 위트와 서로를 생각하는 진심이 진하게 느껴지는 주인공들의 마음이 진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한다.

<저자 소개>

알렉스 휘틀(Alex Wheatle)은 자메이카인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영국 서리에서 자랐다. 청소년 시절 야드맨 아이리(Yardman Irie)라는 가명으로 음악과 시 쓰는 일에 매진하다가 1999년 데뷔 소설 『BRIXTON ROCK』을 발표했다. 이후 『EAST OF ACRE LANE』, 『THE SEVEN SISTERS』, 『ISLAND SONGS』, 『CHECKERS』, 『THE DIRTY SOUTH』 등도 모두 평단의 호평을 받고 영국 내 학교에서 필독도서로 선정됐다. 2010년에는 BBC1 '원 쇼(The One Show)' 등 자전적 내용으로 구성된 쇼에 출연했다. 2008년, 여왕 생일을 맞이하여 수여된 대영제국훈장의 문학 부문을 수상했다.